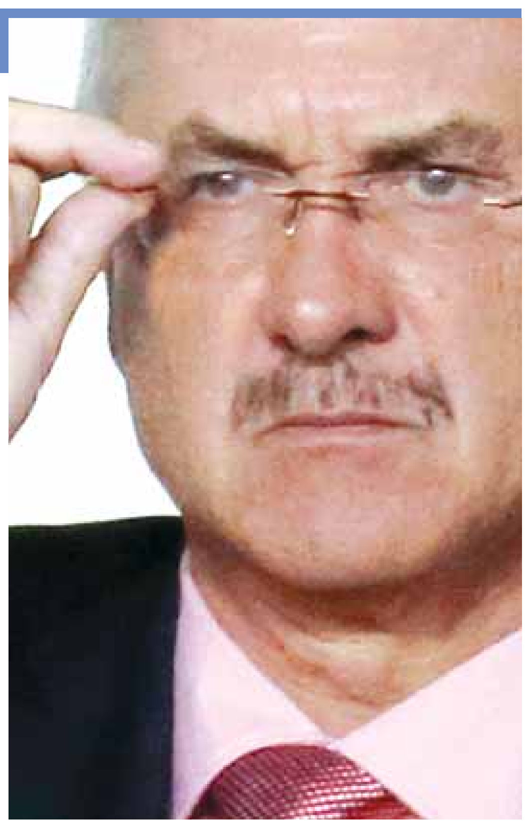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 취임

"한국, 축구 강국 도약 희망 봤다"



레알 마드리드·10년간 獨 국가대표 활약…한국, 평가전 1승 1패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새 수장인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은 한국이 다시 축구 강국으로 도약할 희망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승리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8일 고양 MVL 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끝나고 팬들은 점유율이 얼마였는지 패스와 슈팅이 몇 번이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승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등 최근 대표팀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은 2007년 7월 핌 베어벡(네덜란드) 감독 이후 7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외국인 사령탑으로 낙점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외국인 선수상을 4번이나 받았고 독일 국가대표로도 1975년부터 10년간 활약하는 등 화려한 현역 시절을 보냈다.

지도자로는 1988년 스위스 국가대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카타르 클럽팀에서 활동했다. 특히 1998~2000년 독일 대표팀 수석코치, 2000~2006년에는 독일 유소년 대표팀 감독으로서 독일 축구가 최근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힘을 보탠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최근 대표팀의 부진을 '경험 부족'의 결과로 본 그는 "한국이 다시 축구 강국으로 도약할 희망이 없었다면 감독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슈틸리케 감독은 10월 A매치 날짜인 10월10·14일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그는 "파라과이 10월 첫 경기, 끝나고 경기를 잘 분석하셔서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 비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 축구 대표팀은 베네수엘라(5일), 우루과이(8일)와의 평가전에서 1승1패를 거뒀다.

FIFA 랭킹 29위인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1-1로 팽팽하던 후반 7분 역전 헤딩 결승골과 후반 17분 쐐기골을 잇달아 터트린 이동국의 원맨쇼가 펼쳐지며 3-1로 이겼다.

베네수엘라와의 첫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은 최근 A매치 5경기 연속 무승(1무4패)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내년 1월 아시안컵 준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하지만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4년 만에 펼친 리턴 매치에서 또 다시 패하면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32년째 무승 행진을 이어갔다.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23분 호세 히메네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헤딩 결승골을 내주면서 0-1로 패했다.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에서 우루과이에 1-2로 패해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에 실패한 아쉬움을 4년 만에 되갚으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연합뉴스

다가온 가을…멀어진 가을야구

KIA, 오락가락 날씨에 들쑥날쑥 경기력
LG전 1승1패…한달째 연승 없어
주중 삼성·한화전 이후 4게임 휴식기

후반기 KIA는 꾸준함과는 거리가 먼 들쑥날쑥한 플레이를 하며 도깨비 팀이 됐다.

인천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앞두고 치른 마지막 홈 2연전에서도 KIA는 강팀의 모습과 약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다. 9일 KIA는 모처럼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10-7의 재역전승을 만들어냈다.

3회초 선발 김병현이 보이지 않은 실책 속에 만루포를 맞는 등 일찍 무너졌지만 송은범-최영필-심동섭-김태영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만점 호흡을 과시하며 역전의 발판을 놓았다.

공격의 움직임도 좋았다. 실수 뒤 만루홈런으로 초반 흐름이 일찍 기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상대 2루수 김용의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내 동점을 만들었다.

8회 2사에서 소환된 마무리 어센시오가 박용택에게 역전 투런포를 허용한 뒤에도 신종길·김주형의 연속 안타로 분위기를 끌어오며 바로 재역전을 이뤘다. 잘 맞물려 돌아간 마운드와 뒷심의 공격으로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았던 KIA. 그러나 10일 KIA는 LG 타선에 뭇매를 맞으면서 전날과는 다른 팀이 됐다.

1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던 임준섭이 볼넷 두 개로 1사 1·2루에 몰리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7번 오지환을 시작으로 박경수-최경철-정성훈의 연속안타가 이어지면서 임준섭이 2회에만 5실점을 하고 강판됐다. 구원등판한 서재응도 삼자범퇴로 3회를 막은 뒤 4·5회 손주인과 박경수에게 연달아 3점포를 허용하면서 승부의 추가 일찍 기울었다. 전날 보여줬던 집중력 있는 타격도 아니었다.

2회 안치홍의 2루타와 이범호의 내야 안타로 만든 1사 1·3루에서 1점을 뽑는데 그친 KIA는 3회에는 1사에서 김주찬이 2루타로 출루하고도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KIA의 연승은 지난 8월12일 이후 없다. KIA는 NC전 4-1 승리와 함께 4연승에 성공했지만 이후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들쑥날쑥한 플레이로 연패만 거듭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등판마다 승을 이끌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곤 했지만 연승은 없었다.

비에 흔들린 선발 로테이션의 여파로 선발진이 부진에 빠지며 연승을 잊은 호랑이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앞두고 남은 경기는 이제 4경기. 주중 대구로 가 난적 삼성을 만난 KIA는 주말에는 한화를 만난다. 김진우를 다시 선발로테이션에 합류 시킨 선동열 감독은 양현종-토마스로 연승잇기에 나선다. 선발 복귀를 준비하던 송은범은 중간에서 힘을 더하게 됐다. 마운드 총력전을 예고한 KIA가 연승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9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 경기에서 7회말 1사 3루때 KIA 4번타자 나지완이 LG 투수 정찬현의 높은 공을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덕아웃 톡·톡·톡

선감독, 신인 타격훈련 보며 "나지완 10kg 떼어주면 좋겠네"

▲"10kg만 떼어주면 좋겠네.

타격 훈련을 지켜보던 선동열 감독이 "나지완이 10kg만 떼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인 내야수 박찬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선 감독은 "공을 곧잘 맞추는데 방망이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아직 어린 선수라서 힘이 부족하다. 나지완이 살 좀 주면 좋겠다"고 웃었다. 고졸 신인 박찬호의 몸무게는 66kg. 2군에서 '살찌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였다. 한편 박찬호는 9일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다. 지난 6·7일 NC 원정에서 대수비로 나섰던 박찬호는 9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생애 첫 선발출전을 했다. 1-0으로 앞선 3회 직선타구를 처리하지 못한 박찬호는 자신의 실수 뒤 대선배 김병현이 만루홈런을 얻어맞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팀이 10-7로 재역전승을 거뒀고, 프로 첫 타석에서 데뷔 안타를 기록하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박찬호는 "실수를 하고 나서 무조건 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다"고 지옥과 천국을 오간 심정을 밝혔다.

▲"신기한 하루였어요."

안치홍이 지난 9일 3안타로 나홀로 5타점을 올리며 10-7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안치홍의 한 경기 5타점은 지난 2012년 이후 두 번째다. 안치홍은 "5월6일 경기였다. 5안타로 5점을 만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제대로 맞춘 타구가 아니었는데 다 운이 좋게 안타가 되고 타점이 됐다. 마지막 안타도 그랬다. 공을 맞춘다고 방망이를 돌렸는데 안타가 돼서 놀랐다. 치고 나가서 웃음이 났다. 신기한 하루였다"고 웃었다.

▲"맞고나니 밸런스가 잡히더라고요."

좌완 심동섭은 팀에서 손꼽는 강심장이다. 제구가 약점이지만 가운데만 보고 공을 던진다며 동료 투수들도 인정하는 배짱. 9일 경기에서도 심동섭은 배짱투로 사람들을 들었다놓았다. 5-5로 맞선 7회 마운드에 오른 심동섭은 세 타자 연속 안타로 무사 만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하지만 베테랑 이병규에 이어 오지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투 아웃을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심동섭에 이어 등판한 김태영도 삼진을 잡아내면서 KIA는 무사만루의 위기를 연속 3탈삼진으로 막았다. 심동섭은 "밸런스가 잡혀서 마지막 아웃카운트도 내가 직접 처리하고 싶었다. 김태영 선배님이 잘 막아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